

# 서울女子大學의 敎育理念과 特性



高 凰 京  
(서울女大 學長)

## I. 略史 및 現況

1920년대의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숙원 중의 하나가 女性高等教育機關의 설립이었다. 이를 위해 192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2회 總會에서 여자대학 설립을 결의하고, 1924년 제13회 총회에서 여자대학 규칙을 제정하고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을 식민지화함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 그들에게 불리함을 알고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 인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1926년 제15회 총회에서 여자대학 설립을 留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 8·15 광복, 대한민국정부 수립, 6·25 사변 등의 격동기를 거쳐 여자대학 설립을 유보한 지 만 30년이 지난 1956년 2월에 본 대학의 期成會가 조직되었고, 드디어 1958년 7월 재단법인 貞義學園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본 대학의 독특한 교육을 위해 학생 건원을 生活館에 수용할 것을 계획한 관제상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시외인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릉동 산 228-32), 즉 태능에 부지를 잡고 서울女子大學을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서울여대는 30여년의 태동기를 거쳐

5년여의 준비기를 지나 1961년 4개 學科(기독교 교육학과·사회학과·가정학과·농촌과학과)로 開校한 이래 그 산하에 20개 學科(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불어불문학과·독어독문학과·사학과·경영학과·경제학과·사회사업학과·도서관학과·아동학과·농촌과학과·가정학과·의류학과·식품과학과·영양학과·화학과·산업미술학과·서양화과·공예학과·체육학과·교육심리학과)와 대학원 碩士課程 9개 學科(국어국문학·영어영문학·사회사업학·경영학·가정학·농촌과학·식품과학·공예·교육학)와 博士課程 1개 學科(식품과학), 4개의 연구소, 2개의 부설학교를 가진 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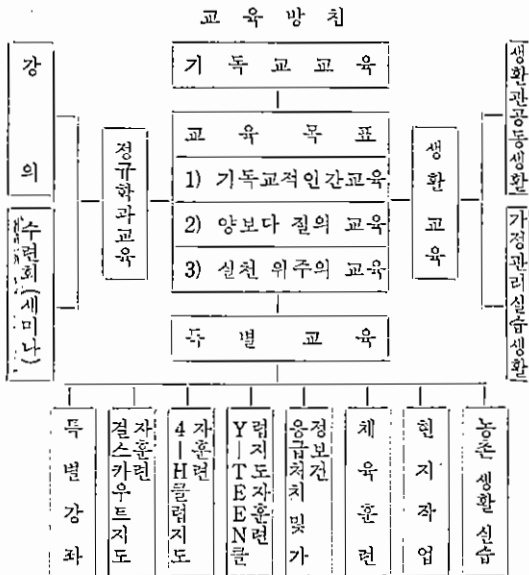
## II. 敎育理念

교육은 人間完成을 위한 한 가지 방편이다. 인간이 되지 못한 국민들이 모여서 좋은 국가를 건설할 수는 없다.

인간이 바로 된 후에야 知識도 技術도 인간행복에 바로 쓰여진다.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만 지식도 기술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인간 완성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 습득만을 교육의 내용으로만 알고 인간 완성을 도외시하거나 심지어는 인간완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지식과

기술만능 주의로 나가는 예가 적지 않다. 그 결과로 지식도 기술도 발전을 보지 못하고 인간은 타락하여 국가의 장래는 위태롭기 짝이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대학에서는 동족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개척자겸 선봉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犠牲的 指導者의 使命感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학문을 익힐 뿐 아니라 몸에 배어 떠나지 않도록 하는 實踐爲主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대학의 教育理念은 “민주국가 건설초기에 강력한 道義精神과 기술을 구미한 指導者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비추어 재래의 대량 생산적이며 지적 편중인 대학교육을 선발받은 극소수에게 均衡 있게 실시함으로써 출세주의, 성공주의, 간관주의를 떠나 동족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수준 이하의 사회와 낙후된 농촌의 지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知·德·術이 겸비된 女性指導者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본 대학 특유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Ⅲ. 서울女大 특유의 生活教育과 特殊訓練

#### 1. 生活教育의 目的

“교육의 효과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약의 효과는 병이 낫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과도 같다. 이것을

거꾸로 풀이한다면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요,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약은 약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이렇게도 변한 이치론 왜 세상스럽게 진술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현실이 행동에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目標에서 벗어난 교육 즉 지식이라는 한 부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제거하고 교육 본래의 使命에 충실하고자 착안된 것이 生活教育으로 이는 흡수한 지식을 잘 소화시킴으로써 이 사회를 향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여 변화를 가져오도록 實踐에 주력하는 교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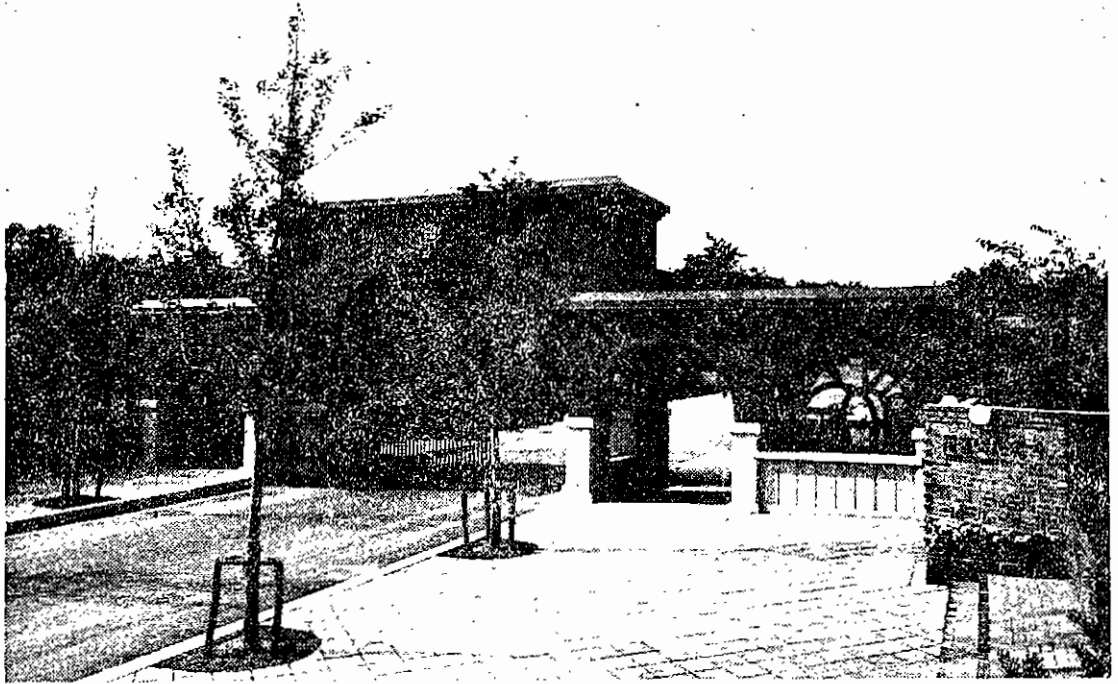
교실과 도서관, 실험실이 머리를 훈련시키는 장소라고 한다면 실천 위주로 마음을 훈련시키는 곳은 精神訓練場이라 할 수 있다. 본 대학에서 이러한 실천 위주의 생활교육을 위해 마련된 곳이 생활관, 가정관리 실습주택이며 기타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와 시설이 있다.

교육이 행동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으로 머리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옳다고 생각될 때 마음으로 결심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깨달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主見을 따르는 것이다. 누구나 확신 있는 자의 행동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確信을 갖추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각종 社會指導者 訓練을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 지도자라면 명석한 이론을 전개시켜 말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몇 배, 몇 십배 效果의인 方法은 자기가 말한 이론대로 술선수법하여 남으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이기에 철저한 자각과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 2. 生活教育 프로그램

##### 1) 生活館 教育

생활관은 학생들의 生活本據地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교실과 운동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빼면 전부 여기서 지내게 되는 만큼 제일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요, 극히 평범한 일 즉 먹고 자고 옷을 바꾸어 입고 몸을 깨끗이 하고 단장하는 등의 일을 반복하는 곳이다. 그곳 생활관



은 내 가정도 아니고, 하숙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또 일반이 잘못 생각하고 있듯이 기숙사도 아니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학생다운 대학생이 되고 장래 사회인으로서 바람직한 사고방식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다듬어 주는 修練道場이다. 수백명이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의 밥을 먹으면서 그날의 필요한 준비를 다 하면서도 남의 自由를 침범하지 않고 내 자유를 보장해 나간다는 능력은 훈련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장소로 마련된 곳이 생활관이다.

1961년 4월 15일에 98명의 신입생 전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 하나의 自己完成을 위해서는 개개인 여럿이 모인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民主主義란 이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實習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관 교육은 본 대학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인 까닭에 소정의 기간 동안 생활관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는 必須過程이다.

## 2) 家庭管理 實習住宅 教育

가정관리 실습주택도 넓은 의미에서는 생활훈련을 시키는 生活館의 하나이다. 오직 가정관리 실습을 결들인 생활훈련장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든 행동은 自律點에 반영되며 가정관리 실습의 評價는 별도로 가정관리 실습학점에 포함된다. 다른 대학에서는 가정학과에만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가정관리 실습과정을 본 대학에서는 전교생에게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 特色이다. 물론 시설과 운영에 부담이 그만큼 크지만 여대 졸업생의 절대 다수가 結婚하여 가정을 갖게 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각자 전공의 여하를 막론하고 가정여성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실습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실습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 나라 中流家庭 중에도 중간층에 해당하는 조출한 20평 짜리 주택 10동을 마련해서 한 집에 9명씩 살면서 일반 가정 주부가 매일 하는 일을 실습해 보는 것이다. 물론 남편이 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크고 작은 자녀를 기르는 가정과 꼭 같은 경험을 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아홉 식구의

한 가족이 질서 있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한정된 돈과 시간을 合理的으로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해 볼 때 그저 막연하게 장래의 이상적 가정을 꿈 속에 그려보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엇이 현실에 맞추어 나갈 때 지장을 가져오는가를 발견함으로써 이후에 주부로서 이상적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현실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자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가정관리 실습을 시키고 있다.

### 3) 現地作業(옥외노동)

이것은 1학년을 통하여 일주일에 2시간씩 작업복을 입고 흙을 만지며 여러 종류의 옥체노동을 하는 시간이다.

이 現地作業은 절대로 노동의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노동 자체를 통해서 건전한 人生觀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흙을 만지며 화초를 가꿀 때, 수매에 돌을 싣고 땀을 흘리며 팔고 가서 무너진 길을 고를 때 자기 마음의 자세만 올바르게 가진다면 내 손에서 무엇이냐 建設될 수 있다는 의욕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파괴 앞에서도 건설의 희망을 갖고 당황하지 않을 自信을 갖게 해주기도 한다. 극히 평범한 작업이지만 반복하는 동안에 일이 무섭지 않다는 생각과 내 손으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산 보람을 느낀다는 기쁨이 어딘지 몸에 배어서 그 사람의 건전한 價値觀을 形成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 4) 農村生活 實習

장래 한국의 指導女性이 될 준비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농촌의 발전을 오직 꿈 속에만 그려본다는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기초를 둔 알날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 농촌 생활 실습이다. 비록 짧은 열흘 동안이나마 농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고 땀을 흘리며 함께 일을 할 때 농민들이 옥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며, 그들이 주어진 그 여건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과 향상이 가능한가 자극을 받고 硏究해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오히려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大學教育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 자기 국민의 생활의 참모습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의 도시 인구가 나날이 늘어간다 해도 현재로는 한국인의 도시생활이 한국인의 생활의 참모습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農民의 生活와 思考方式이 한국인을 대표한다는 편이 더욱 타당하기 때문이다.

공업화의 선봉으로 깃발을 날리던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아무리 공업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자기 국민의 식량을 외국의 생산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과 무조건 공업화만이 국가번영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敎訓을 받아야 한다. 어떤 낭만적인 추구나 값싼 동정으로 농촌을 방문하는 것보다 깊은 생각과 계획에서 농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4년 동안에 꼭 한 번은 필수적으로 농촌생활을 실습시켜 졸업하게 하는 것이다. 단지 그 실습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편의상 4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고 있다.

### 5) 指導者 訓練

생활교육 전체가 장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의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지도자 훈련과 관계 없이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특히 이 제목을 따로 다루게 된 이유는 10대 소년 소녀를 지도하는 具體的 方法을 배우며 실습해 보는 중요성 때문이다. 거기에 보태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부족한 社會訓練을 매워 보자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이나 영국의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橫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훈련을 意識적으로 잘 받는다. 그 외에 여러 가지의 클럽(club)에 소속이 되어서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동무들과 1對 1의 동등한 위치에서 열살 미만의 어릴 때부터 한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힘을 합하며 뭉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즐겁게 실천하며 배운다. 그 때문에 학교 이외의 그런 산 교육의 힘을 얻어 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에 나갈 때는 당황하지 않고 누구

와도 잘 어울릴 수가 있다. 평면 위에서 서로 손잡고 橫的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며 민주주의를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傳統의 영향으로 가정에서도 縱的인 上下 관계에만 치중한다. 따라서 횡적 관계에는 거의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는 형편이며 클럽 훈련을 받을 기회조차 매우 적어서 강래 민주사회를 건설할 役軍으로서의 준비부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 점에 착안해서 본 대학에서는 1학년과 2학년 시절에 걸-스카우트, 4-H 클럽 지도자훈련, Y-Teen 클럽 지도자훈련 등의 세 가지 클럽훈련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10대 소년 소녀들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 어떤 나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조직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게 함으로써 남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이 되게 하는 것이다.

#### 6) 特別講座

강래 지도여성의 폭 넓은 教養教育을 위하여 대학 정규 교과 외에 학계, 문예계, 자연과학계, 시사 등 사계의 著名人士를 초빙하여 전체 학생에게 특별 강연을 듣게 한다. 이것은 그 실시 과정에서 대부분 그때 그때의 시사성에 맞추어 강사를 초빙하게 되었다.

#### 3. 特殊訓練

현재 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훈련은 우선 자기 자신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위급한 경우에 호신술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훈련이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며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므로써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타개할 수 있는 자신과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특수훈련 프로그램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은 ① 응급처치 및 가정보건, ② 자전거타기, ③ 빙상활주, ④ 수영, ⑤ 유도이다.

#### Ⅳ. 서울女大教育의 처음과 나중

아침경전회와 특별종교집회는 학생 하나 하나

의 가치관 형성의 척추가 된다. 倫理道德이 깊이 들어갈 때 종교와 통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도의정신에 앞장서는 인간을 완성(교육)시키려면 철저한 信仰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본 대학의 창립정신이요 교육이념이기 때문이다.

아침경전회는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오전 4교시에 50분간 전교생과 교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실에서 거행하고 특별종교집회는 매학기 한 번 이틀 동안 靈의 指導에 전념한다.

본 대학 교육의 기초가 되는 基督教精神을 가르치기 위한 성경이 기독교 생활철학이란 이름으로 필수과목이 되어 있어서 선구약을 통한 기독교원리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아침예배와 특별종교집회는 우리의 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수 있는 목표설정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基本方向을 제시하는 것이다.

#### V. 展 望

아무리 짧은 미래의 단기계획이라 해도 긴 과거보다 어터울 수가 있다. 과거는 그 실적을 기억과 기록을 통해 종합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미래는 미지수이고 가능성만이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는 국내외로 뜻하지 않은 급격한 변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20여년 전에 세운 서울女大의 교육이념과 목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동안 숱한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쳐 그것을 극복할 때마다 신념이 그만큼 더 강해졌다.

외부의 무책임한 비판보다 훈련을 기피하려는 학생들의 抵抗이 더욱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다. 20여년이란 세월은 피교육자에게도 많은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옛날보다 더 많은 問題點을 안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 현상은 오히려 우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립 10주년과 20주년을 기하여 본 대학의 교육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한 여러 항목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재학생은 현재의 교육훈련

이 장래의 교육효과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졌고, 졸업생은 그 훈련을 떠난 기간이 길어질수록(졸업년도별로 보아서) 평가가 높아졌다. 이것은 단적으로 현재의 쓰린 훈련이 졸업 후 시간이 갈수록 그 교육효과가 커진다는 산 증거인 것이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 간 졸업생들은 본 대학의 이념과 생활실천교육이 그 나라에서의 사회적응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생활교육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시대에 앞선 先驅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졸업생들에 의해 외국에서 재발견되고 있다.

이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엄숙히 서약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불가항력의 힘이 우리를 가로 막지 않는 한 본 대학

創立理想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당초의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教育風土가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팽대를 강요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반대로 질적 교육만을 지향하는 소규모의 대학은 운영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된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러한 교육현실을 아주 외면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全人教育을 실시함에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양적으로 늘려 소규모의 綜合大學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장차 우리 서울여자대학은 생활교육 위주의 기독교 여성지도자 양성기관으로, 작지마는 알찬 종합대학으로 길이 길이 발전할 것이다. \*